

회 방문 및 협약체결은 지난 UIA 베이루트 이사회에서 중국 측 이사로 부터 4월 중국 난징에서 개최되는 UIA 임원회의(4.11~12) 시기에 맞추어 진행되는 방안을 제안받은 바 있으므로(심재호 UIA 이사) 추진 여부를 회장과 협의하기로 함.

- 유럽건축사협회(ACE)와의 교류 추진은 한-EU FTA 협상체결과 관련 한국에서의 Working Group 실무회의 개최 추진을 논의하다가 중단된 바 있으나, 유럽과의 지속적인 교류 추진을 위해서는 ACE와의 교류 방안에 관해 다시 고려하기를 제안함.
-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협약(MOU) 체결은 현재 체결 중인 단체의 경우에는 향후 구체적인 교류 추진 방안을 국제위원회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회원들의 해외시장 진출 등을 고려하여 향후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체들도 추가로 정리하여 향후 국제교류 추진이 일정한 원칙과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회장에게 국제위원회의 의견을 건의하기로 함.
-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위원회 국제교류 사업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문서로 정리하여 차기 국제위원회에서 정보공유, 신입위원 교육, 업무분장 등에 활용할 있도록 메뉴얼을 작성하기로 함.
- 국제 교류사업의 연간 계획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함.
- 제2호 : 국제위원회 활동 개선방안 및 2010년도 감사 결과의 건
 - 국제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감사 결과에 따라 국제위원회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조치계획을 제안함.

협회소식

우리협회 강성의 회장, 일본 JIA와 JFABEA에 지진 피해 안부 서신 전달

우리협회 강성의 회장은 최근 일본의 강진 및 쓰나미 피해와 관련해 지난 3월 11일 일본건축가협회(JIA)와 일본건축사협회연합회(JFABEA)에 안부 서신을 보냈다. 강성의 회장은 JIA 타로 아시하라 회장과 JFABEA 마사야 후지모토 회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저와 본 협회 모든 회원들은 이번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 및 쓰나미로 인한 재해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으며 모든 JIA 회원 및 일본 국민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JIA 회원과 모든 일본 국민의 안전을 기원하며, 빠른 시일 내에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성의 회장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JIA, JFABEA 건축사들과 일본국민들을 돕기 위해 노력을 할 것과 협회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멕시코건축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 MOU 체결

지난 2월 24일 우리협회는 멕시코건축사협회 리잔드로 드라 가르자 빌라레알 직전 회장과 건축단체 간 업무 교류에 대해 논의하고, 양 단체



간 건축관련 법·제도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MOU를 체결했다. 특히 멕시코건축사협회 리잔드로 드라 가르자 빌라레알 직전 회장은 중남미국가 건축인으로는 최초로 협회를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우리협회는 몽골과 멕시코 두 단체 회장과 아시아건축사협회(ARCASIA) 회장에게 2월 25일 개최된 대한건축사협회 제45회 정기총회에서 명예회원증 및 프레지덴셜 메달을 수여했다.

2011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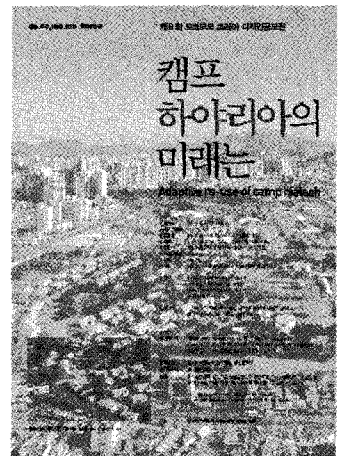
2011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 특별전형시험이 오는 5월 15일(일)에 시행된다. 시험시간과 장소는 오는 4월 20일(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되며, 응시원서 접수는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인터넷(www.kira.or.kr)으로만 접수된다.

합격 예정자는 5월 27일(금)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다.

건축계소식

제8회 도쿄모모코리아 디자인 공모전

도쿄모모코리아는 여덟 번째 공모 주제를 '캠프 하아리아의 미래는'으로 정하고 부산진구 범전동, 연지동 일원의부지에 캠프 하아리아의 반환이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에 주목했다. 이는 지난 100여년 동안 비움의 공간으로 남아 있었던 미군부대가 우리 공간으로 돌아옴을 알리는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굴곡진 근현대사와 그 안에 녹아있는 삶의 진지한 고민을 가져다줄 이번 공모전은 그동안 잊고 지낸 것들에 대한 가치와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가 되리라 본다.

- 등록기간 : 2월21일~4월15일
- 작품접수 : 5월 26일(경성대학교 체육관)
- 심사발표 : 5월 31일
- 문의 : 070-8224-0502 / www.docomomo-korea.org

주한프랑스대사관, 2011 장프루베-김중업 장학생 선발 공고

2004년부터 시행된 한국의 대표적 건축사 김중업의 이름을 딴 프랑스 정부의 '김중업 장학생' 선발이 올해부터는 '장프루베-김중업' 장학생으로 선발된다. 매년 1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프랑스 현지 건축사사무소와 3개월간 협력 작업을 시행했던 '김중업 장학생'은 올해 1명을 더해 총 2명을 선발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조경, 실내건축 분야이며, 모집대상은 35세 미만의 실무종사자 또는 건축대학 5학년 이상 또는 대학원 재학생(2011년 4월 기준)으로서 실무에서 불어 혹은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자이다. 지원내용은 프랑스 현지 관련 사무소에서 올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습 및 체류비(1인당 총 4,000유로)를 현지에서 지급한다.

1차 심사는 서류 및 포트폴리오 심사, 2차는 면접, 서류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한다.

온라인 사전접수는 4월 6일까지, 서류제출은 4월 8일까지이다.

- 문의 : <http://cafe.naver.com/irarchi>

세련되고 차별화된 디자인, 끊임없는 기술개발, 품질관리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창호로 거듭나고 있는 KCC창호는 한층 업그레이드한 친환경으로 우수한 에너지 절감 기능을 더해왔으며, 2009년 창호부문 사용품질지수 1위에 이어, 2010년에도 사용품질지수 1위를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KCC 창호 이외에 현재 4개의 제품에 대해서도 탄소성적표지 인증 취득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지속적이고 끊임 없는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활성화 시키고 및 고객이 신뢰하고 감동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개발에 매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KCC는 창호의 탄소성적표지에 이어 석고보드(2월 말), 라미필름(3월), PVC바닥재 및 마루재 제품(4월)의 탄소성적표지인증도 추가 획득할 예정이다.

KCC 식스 시그마 BB(Black Belt) 인증자격자 배출



KCC 창호, 업계 최초 '탄소성적표지 인증' 획득



KCC 창호가 환경부로부터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았다. 탄소성적표지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해 제품 생산·수송·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배출량인 탄소발자국을 제품에 표시하고, 친환경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탄소성적표지는 정부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점수 획득에도 기여하며,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CC창호의 이번 탄소성적표지는 창호업계 최초 획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KCC 창호는 기밀, 수밀, 단열, 방음, 내풍압성의 5대 성능이 우수하다. 우수한 기밀재와 다양한 두께의 복층유리 사용, 특수 하드웨어의 우수한 밀폐성능으로 외부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다양한 개폐기능의 과학적이고 정밀한 특수 하드웨어의 사용으로 손쉽게 열고 부드럽게 닫을 수 있다. 특히 현대와 같이 에너지 절감이 절실한 시대에 단열성이 우수한 시스템 창호는 창을 통한 에너지 손실을 막아주므로 냉난방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KCC는 용인 중앙연구소에서 시행된 '품질경영본부 전략운영 워크숍'에서 KCC의 선진 품질 경영을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에 대한 자격 인증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CC 선진 품질 경영 체제 재정립의 일환으로 도입된 6시그마 자격 인증제는 활동의 수준에 따라 GB(Green Belt), BB(Black Belt), MBB (Master Black Belt)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에 맞는 역할 수행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KCC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KCC는 경영목표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적 품질 경영 체제의 재정립과 이를 통한 글로벌 정밀화학 기업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강조해온 바 있다. '품질'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구체적인 제품에 국한된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제품 개개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산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 내의 모든 부문 임직원들이 동참해야만 품질 경영은 완성된다는 것이다.

KCC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품질 역량의 확보에 달려있다는 명제 하에, 전사적 차원의 포괄적 시각으로 품질관리에 대한 업무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정보공유를 통한 품질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상당 부분 초석을 이뤄냈다고 평가 받고 있다.

KCC는 수준 높은 교육과 사업장 별 고질적인 품질 문제를 개선한 인원에 대해 엄정한 인증 심사를 거쳐 2010년도에 6명의 GB와 2명의 BB를 최종 배출하였다. KCC 관계자는 "탁월한 과제 수행 능력과 우수한 성적으로 BB 심사에서 천안사업장 윤석현 과장과 대죽사업장 김택진 과장이 합격했다.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